



태권도원 합동 소방훈련 실시

"태권도원 T1 경기장 전기실 화재와 대피 중 인과 밀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름휴가 등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이사 서필환), 무주소방서(서장 오승주)가 참가한 태권도원 합동 소방훈련이 23일 실시됐다. 이날 합동 소방훈련에서는 국제 태권도 대회와 대규모 행사 등이 자주 열리는 태권도원 T1 경기장 화재를 가정, 대피 유도 및 초기 화재 진압 및 자체 인명구조 등의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합동 소방훈련에는 무주 소방서 펌프차량과 구급차량 등 소방 장비와 함께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자위 소방대도 참여하는 등 긴장감 넘치는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화재 발생에 따라 대피 안내와 사이렌 방송,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자위소방대에 의해 대피 유도, 초기 진화가 이루어졌다.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무주소방서 대원에 의한 화재 진화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합동소방훈련 이후 훈련 강령 시간을 갖고 소화기 사용법·심폐소생술·하임리히 요법 실습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한 교육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새만금전락과,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새만금전락과가 지난 2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가지 결순 제거 등 일손돕기에 나섰다 밝혔다. 소근심 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새만금전락과 직원 십여명은 황산면 진천마을에 위치한 가지 농가를 방문해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해당 농가는 "작황한 시기에 결순을 제거해 주지 않을 경우 결순에 영양분이 뺏겨 가지가 갈라져 품질 좋은 가지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새만금전락과 직원들이 본인 일처럼 열심히 결순 제거에 힘을 보태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소근심 개발사업단장은 "한 해 농사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김제 새만금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 부귀면, 농촌 일손돕기 나서

진안군 부귀면은 23일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고령의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은 부귀면, 건설교통과, 환경과 직원 등 15여명이 오토리 소재의 인삼밭을 방문해 인삼 딸 제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인삼 딸 제거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직원분들이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조봉진 부귀면장은 "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부귀면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경찰서, CCTV 관제요원에 감사장 전달

김제경찰서(서장 백형석)는 23일 오전 세밀한 CCTV 관제를 통하여 살인피의자 이동경로 실시간 전파로 사건 조기 해결에 기여한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김모씨 및 고모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관제요원들은 지난 3월 인접경찰서 살인 발생 도주 피의자 및 용의차량이 관내 확인되어 이어 실시간 차량 위치 확인 및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및 관할 지구대로 지속 전파하여 살인 피의자 검거 및 사건 조기 해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재심' 박준영 변호사 초청 교양특강

전주장학숙, 입사생 대상 '그래도 희망은 있다' 주제 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은 지난 22일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초청해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주제로 입사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이후 전북 지역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리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사법 피해자들의 무죄를 밝혀냈다. '재심'은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냈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이다. 문항규 전주장학숙 관장은 "불우했던 학생 시절과 배고픈 국산변호사 시절을 담고 역동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박준영 변호사의 특강이 인상 깊었고, 우리 입사생들이 힘든 상황을 마주해도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및 헌법재판소 모범 국산대리인 표창(2016),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에 힘써오고 있다. 박 변호사의 인권, 정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큰 울림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은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1번지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정원 300명 규모의 시설로 각종 편의시설과 대학별 통학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숙식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및 인적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전북의 인재 양성을 하는 기관이다. /오만호 기자



있다. 박 변호사의 인권, 정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큰 울림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은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21번지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정원 300명 규모의 시설로 각종 편의시설과 대학별 통학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숙식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및 인적 네트워크 활동 등으로 전북의 인재 양성을 하는 기관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대 김현승 박사과정생, 한국세라믹학회 포스터발표 우수상

주저자 연구로만 8번째 국내외 학술대회 우수발표상 받아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팀의 김현승 박사과정생(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이 최근 열린 '2024년 한국세라믹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압전 세라믹 입자와 고분자를 활용한 복합재료 우수 연구로 포스터발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 박사과정생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압전 세라믹 입자와 고분자를 섞은 복합재료를 이용해 문어 빨판과 물방개 쉼질 구조를 모사한 미세구조체를 만들었다. 이 복합소재를 기반으로 사람의 몸에 밀착해 붙인 후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센서를 구현, 호령을 받았다. 특히 정창규 교수와 함께 압전소재·소자 및 지성 복합소재를 연구하고 있는 김 박사과정생은 박사과정 3년 차 만



에 주저자 연구로 무려 8차례나 학술대회 발표상을 수상했다. 김 박사과정생은 한국세라믹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한국센서학회, MCARE 국제학술대회, ICAE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바 있다. 공저자까지 합치면 무려 15차례다. 지난해 말에는 마카오에서 개최된 아시아 강유전체 학술대회에서 많은 해외 연구자들 앞에서 직접 구두(Oral)발표를 했다. 김현승 박사과정생은 "연구실 학생들이 다양한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해 지난 4년 간 20여 차례 수상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지도교수님께서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연구의 중요성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준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사범대학, 태국 송클라대학 사범대학과 상호 교류 협정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 22일 태국 송클라 대학교 사범대학과 상호 교류 협정(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MOU에는 송클라 대학교의 아피파 라테 학장과 허미다 무서 교육혁신 부학장, 미차이 왕탱 국제협력 부학장, 니리타 공평 한국어학과 교수,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967년 태국 남부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된 송클라 대학교는 현재 5개의 캠퍼스로 이뤄져 있으며, 매년 태국 상위 10개 대학에 선정되는 우수 대학이다. 사범대학이 소속된 파타니 캠퍼스의 재학생 수는 약 8,000명이고, 17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을 주관한 박기범 학장은 "태국과 한국에서 우수한 교원 양성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두 대학이 이번 협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교원 양성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배양한 예비교원 양성을 목표로 두 대학 간 교육과정, 교육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의 상호 방문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황학 대동제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1~22일 양일간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2024년도 황학 대동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학 대동제에서는 △동아리 공연(파노라마, 울림촌, 다스름, 카스탈리엔, BPM, DM) △하우 참여 이벤트 △초청 무대(다제이 파티, 초청 가수 공연)와 중간중간 경품 추첨, 미니게임, 장기 자랑 등이 펼쳐졌다. 또한 주간 행사로 먹거리 장터, 사진관, 길거리 노래방, 상설 부스 프로그램을 마련, 학내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박병춘 총장은 "그동안 화합에 집중하느라 지친 마음은



대동제를 통해 충분히 회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 간 화합을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심화현장실무 우수 운영 학과 시상

전주기전대학은 23일 2024학년도 심화현장실무 우수 운영 학과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화현장실무는 본인의 전공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진로 설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타 학과 전공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 탐색 교양 교과목 프로그램이다. 평가항목으로는 △계획의 우수성 △운영의 우수성 △참여의 적극성 등이다. 이에 따르면 심화현장실무 취직외의 부합성, 프로그램 내용의 적합성, 학과 자원 활용의 적절성, 참여유도의 적극성 등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작성자를 선발했다. 선정된 대상 3개 학과 외에 우수상 및 장려상 등 시상상을 통해 진로 설정과 취업역량 강화활동을 격려했다. 조덕현 산학협력처 처장은 "심화현장실무를 통해 진로와 취업 분야의 탐색과 가치관이 확립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 상동지구대(대장 김광국)는 지난 22일 상동 미소거리 등 신고 다발 장소 일대에서 범죄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자율방범대와 합동 야간 순찰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순찰은 관내 치안 수요가 많은 미소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범죄 취약지역 골목길 등 세세하게 누비며 범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과 동시에 무단 점포 등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합동 순찰이 끝난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치안 활동 협력 방안 및 주민들이 생각하는 범죄 취약지를 공유하고 추후 합동 순찰 노선지를 정하는 등 협력 치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순찰을 통해 발견된 범죄 취약지 등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장소에 대해 발발 진단 및 방범 시설물을 점검하고 CPO(범죄예방컨설팅)에 통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 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김태환 기자



남원소방서, 9월 말까지 폭염 대응 구급대 운영

남원소방서는 오는 9월 말일까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폭염대응 구급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208명이 발생, 이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차 9대, 예비출동대인 펌블런스 5대, 구급대원 81명을 폭염대응 구급대로 지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얼음조끼, 얼음팩, 체온계, 전해질 용액 등 폭염대응 물품 9종을 적체한다. 또한 119구급차량 에어컨 성능확인 등 점검 실시, 구급대원 및 펌블런스 대원 응급처치 능력강화를 위해 이론 및 실기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폭염대비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광활면 복지기동대,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23일 복지기동대(대장 안광연)가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기동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발걸음 화장실 등 낙상사고가 우려되는 집안 곳곳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다. 수혜 대상인 한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넘어져 다칠뻔했는데, 이렇게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주니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823	고창지사 563-68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